

# 새 주인 찾는 '요기요'... 인수 후보 '빅테크·대기업' 물망

DH,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매각  
인수 결과 따라 배달앱 지각 변동  
네이버·카카오 등 인수 '관심'

## 요기요

요기요 로고.

/요기요

배달앱 2위 요기요를 누가 차지할지  
를 두고 업계의 예상이 분분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 코리아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각각 1위와 2위인 만큼 향후 요기요 인수 결과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독일 DH는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DH에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

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담은 기업 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DH 측은 보고서 검토 이후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DH는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40억 달러(약 4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약 1년간의 기다림

끝에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DH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아한형제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내년 1분기 중 공정위로부터 최종 결정서를 받아 한국법인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에 DH 코리아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수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요기요의 2019년 매출은 1944억원으로 배달의민족(5654억원)의 34% 수준이다.

현재 요기요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 기업과 신

세계, 롯데, GS 등 유통 대기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사모펀드나 해외 음식 배달 서비스업체도 인수자로 거론된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배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반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기요의 인수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는 배달 서비스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우아한형제들 지분 4.7%를 소유하고 있으며, 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륜차 배달 대행업체 '생각대로'를 서비스하는 인성데이터에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우아한형제들 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요기요 인수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카오는 커머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큼 요기요 인수를 통해 배달 사업 강

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까지 요기요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쿠팡이츠로 배달 서비스 시장의 입지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쿠팡도 요기요 인수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DH는 배달앱 1위인 배민의민족을 통해 한국 시장을 수성하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물 들어올때 노 젓는다... 국내 車 대폭 할인

작년 車 내수시장 약 190만대 판매  
인기 품목 대상 할인 프로모션 진행  
노후차 보유 고객에 혜택 제공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개소세 감면과 노후 차 교체 등 정책 지원과 신차 효과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약 190만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인기 품목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5일 이전에 차량을 예약한 뒤 1월 중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을 할인하는 '신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HEV 제외), 더 뉴 그랜저(HEV 제외), 더 뉴 쏘타페 등이다.

또 10년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이 쏘나타(HEV 제외), 더 뉴 그랜저(HEV 제외), 더 뉴 쏘타페를 구매할 시 각각 30만원, 5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제네시스 G90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2.5% 저금리 할부혜택도 진행한다.

기아차는 10년, 15년 경과 노후차에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대한 특별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노후차를 승용차나 레저용 차량(RV)으로 구매시 최대 50만원 할인(셀토스, 쏘렌토, 카니발, 상용 제외)을 제공한다.

한국지엠은 1월 한 달간 '2021 해피쉐비 뉴 스타트' 프로모션을 통해 스파크 구매 고객(LT, Premier 트림을 기준)에게 콤포 할부 선택 시 100만원의 현금 지원 또는 선수금과 이자가 전혀 없는 더블 제로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선수금과 이자가 전혀 없는 더블 제로 48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의 낮은 이율로 72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장기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르노삼성도 1월에 재구매하는 고객

을 대상으로 뉴 QM6, XM3, 더 뉴 SM6, 캡처 모델에 한해 최대 200만원의 가격적인 재구매 고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뉴 QM6 GDe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구입비율, LPe 구매 시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해피 뉴 스타트 페스티벌'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할인, 안심케어 기프트 세트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페스티벌 해당 모델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자부담을 확 낮춘 0.9% 할부 구매 프로그램을 최장 60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30만원의 재구매 할인혜택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제네시스 GV70, '이달의 차' 선정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2021년 1월의 차에 제네시스 GV70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신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제품의 실용성 ▲안전성 및 편의사항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5

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후보 차량을 선발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 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차량 1대를 선정한다.

지난 달에 출시된 신차 중에 메르세데스-벤츠 AMG GTC 로드스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제네시스 GV70(브랜드 가나다순)가 1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GV70이 20.3점(25점 만점)을 얻어 1월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

/양성운 기자

LGU+

## 월 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새해 요금 경쟁의 신호탄을 쏘았다.

LG유플러스는 4~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5G 요금제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데이터 용량은 늘었다.

우선 11일 출시되는 '5G 슬림+'은 월 4만7000원에 5G 데이터 6기가바이트(GB)를 쓸 수 있다.

/김민 기자 sikni@

## "기술력 갖춘 보안 제품으로 해외 노린다"

구서윤의 IT터뷰

하영빈 에버스핀 대표

해외 시장 공략... 조인트벤처 방식  
올해 IPO... 합작사 20개 이상 목표

"저가 제품을 주로 원하는 국내 보안 시장 대신 가격이 비싸도 기술력이 좋으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장 제품을 저렴하게 팔면 매출은 올릴 수 있지만 수익은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회사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에버스핀 하영빈 대표가 독자적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 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하영빈 대표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조인트벤처(공동사업체) 방식을 택했다. 그는 "우리의 보안 솔루션이 아무리 좋다 한들 미국과 유럽 제품이 강세인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적다"며 "현지 영향력 있는 대기업과 손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 제품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식은 조인트벤처다. 해당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그룹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하 대표는 "처음에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팀장, 부장, 이사, 전체 이사, CEO, 회장을 만나서 과정을 거쳤다"며 "모든 단계를 직접 설계해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과 조인트벤처를 맺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렬적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3개의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나니 노후가 생겨서 수월해졌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위력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일본 SBI 그룹, 인도네시아 엠엔씨 미디어 금융그룹, 인도 피닉스 그룹 등 3개국의 대그룹과 조인트벤



하영빈 에버스핀 대표. /구서윤 기자

처를 결성했다. 유럽의 IT 그룹인 아발록과 세일즈 파트너도 맺었다. SBI 그룹은 전 세계에 150개의 금융사를 가지고 있다. 에버스핀에 신주로 2000만달러(약 217억원)를 투자했다. 엠엔씨그룹은 인도네시아 방송미디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도 소유하고 있다. 피닉스 그룹 역시 22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그룹이다.

하 대표는 "앞으로 조인트벤처를 20개 이상 만들 생각"이라며 "올해는 IPO도 예정되어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에버스핀의 주력 솔루션은 다이나믹 시큐리티 방식으로 동작하는 해킹 방지 솔루션 '에버세이프'와 사기 방지 솔루션 '페이코프인더'다. 해킹 방지는 해커의 위협 행위를 막는 솔루션이고, 사기 방지는 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차단하는 솔루션이다.

하 대표는 "다이나믹 방식은 시간에 따라서 솔루션이 변화하기 때문에 해커가 공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게 에버스핀의 비전이다.

지난해 9월 론칭한 페이크 파인더는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이 도입했다. 금융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목표는 에버스핀을 한국을 실리 콘밸리처럼 만드는 것이다. /구서윤 기자